발행인 박 승 홍
주 간 양 수 산
편집장 김 초 석
법명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우편번호 131
TEL 69 3751(직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허가 번호 제라253호)

1972년 5월1일 발행

제 165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춧점

사상기만한 세파는 사정없이 몰아치지만 꿋꿋한 외대의 정론은 2월휴교가라고 있다. 선지된 학구열은 「진리, 평화, 창조」의 상징인데 섬뜩는다. 이제 겨절을 모르는 외대의 낭만은 미련에서 벗어서 심미안(審美眼)을 발휘고 있어 창작과 감상의 기쁨은 외대를 중심하고 있다.

특성살린 행사로의 발전

「세계민속예술제전」을보고

사설

종학생회는 지난해에이어 금년에도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2회 「세계민속예술제전」을 기획, 시일회관에서일반에게 세계 여러나라의 고유한 종속춤과민요로써 많은 갈채를 받았다. 사실 그중한 15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도 이를 활용하고 또 각 언어사용국과의 가교(架橋) 역할을 할 목적있는 행사라나 전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세계민속 예술제전」의 공연은 본대학으로서 매우 의의 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처음 「동남아 문화의 밤」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른 이 제전이 처음보다는 법위가 확대되어 거교적인 행사로서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주최되어야 할 행사로 자계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도해야할 외대인으로서 주선 기관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계민속예술제전」이 준더 외대인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綜합的)인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보아,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진행상의 원칙을 가능한한 축소시켜야 한다. 일체만점에 가까운 예상이 투입된 행사로 그에 상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당국이 신중히 경가 분석함수 있는 지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서 주관학생회는 학교측을 행사 그자체로서 만족하고 준더 효율적인 운영개선책을 위해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결국 이것은 매년 특같은 무 (無) 의 신수를 반복하게 되어 장기적인 행사로서의 값진에 있어 장애의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 「3·1절」에서의 관연이 갖은 관중을 동원하지 못했다는것은 관연의 경우 남방된 입장임으로 그 정반대의 현상을 빚었고 거수 머릿동안의 부끄러한 연습으로 부족에 섞 수 있다는 것은 반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무대「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선정 (選定) 을 위해 작이학과 교수와 관계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관을 두어각 외국어 학과들이 특성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나라의 민속을 소개하도록 해야겠다.

몇년째 거속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학과가 있는가하면 전조출연으로 나온 관연자들이 학생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마는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차원의 비판은 곧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의식을 의미함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외의 특성을 미의적으로 결표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관연횟수를 늘려야 한다. 국연일자를 본대학 개교기념일로 정정한 것도 [illegible] 것이만 하셔서 3,000의 시민관연에서 [illegible] 시민카드포함시킨다면 1회공 [illegible] 수용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을 [illegible] 시민카드포함시킨다면 1회공 [illegible] 수용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을 [illegible]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몇가지 외래도 조그마한 개선점들은 많지만 기획,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될 수 있으며 이 「세계민속 예술제전」이 외대인 특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향구적인행사로 발전하기 위한 외대인 전부의 노력내지는 활동력인 협력의식도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본다.

개교기념 축제모두 끝내

제2회 「세계민속예술제전」성황리에막내려

카니발 행사에의 학생 무관심은 여전해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제2회 「세계민속예술제전」의 현장면.

세계민속예술제전

제18회 개교기념일을 맞은 기념행사로서 제2회 세계민속예술제전이 20일 오후2시부터 5시45분까지 3시145분간 광16개학과가 출연 열띤 관연을 갖내고 일단락에 막을 내렸다.

이날 사회인 이영선(J3)군과 홍미주(I4)양의 개회사로 막을열 세계민속예술제전은 여러민족에 속해진은 여러과같이 프랑스어 교육과의 프랑스 민속춤인 뮤빌상 중여과와 중국민요합성, 중국고전무용 (주한화교학생) 등과같이 16개학과가 각각 2, 3등의 프프을 마연 라였는데 러시어과의 민속무용, 보트투답어과의 보트투답민속춤 에스파니어과의 민속춤등은 매 호평을 받았다.

예상외로 불빈 이날세계민속예술제전에 표를 가지고도 못들어간 사람이 많았으며경찰가지 동원하는등 시민회관 관리측과 학생회 안내측에선 늘려든 인파와 질서정리에부심하기도했다.

카니발및 각종전시회

본보개교 18주년 기념축제의 막이 (21날) 을 이날 카니발이 22일 하오 3시30분부터 벌관앞 가설무대에서진행되었다.

국악예술학교 여학생들의농악, 화관부, 경부공연을 스타프로 Sing out이 있었고 경음악연주, 초청가수공연이 계속되는중간 각계임원에서는학내 여러시설주관으로 빙고게임, 사격대회, 볼링, 포리민시기, 쏘션리트리기 Smile game 등 다채로운 게임이 진행되었다.

악 20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참가한 이날 포요일 오후의 캠퍼스는 파사한 이분동상의 빛공과 더불어 대육 중청가 빛는데 장기대회중 이노출연자의 조장하고 저속한 표현이 약간의 지반과 비난의대상이 되었을 뿐 별 차질없이 계속되었다.

캠퍼스 곳곳엔 각 서울이 주관하는 간이매점이 선을보 정문으로부터 운동장까지의양옥 길가엔 본대학내 23개각학과별로 특색을살린Carnival 포스터가 붙어있어 이채롭게 했다.

오후 7시30분 부터는 대운동장에서 외대상징하는 C-ampus fire가 점화되었고 포크 댄스지도가 학생간 성황리 행되었다.

8시10분 그막을 내린 이번 카니발을 어려가지 성의와 노력의 흔적을 여실했으나 학생들의 미숙적인 법조 진행체제와 진행의 혼란들이 노정사태고 아기되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남긴채 끝나고 말았다.

한편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교내 빛꽃전산에서 외대문학회 주최로 시화전이열려 33개의 작품을 공개, 은한 문학의 향기를 발휘시켰으며 엘글스에서는 도서관 보비를 이용하여 제9회 사진전을 개최했는데 총54점이 전시되었다.

미술부는 별관 201호실에서 미술전을 열어 시선을 끌었으나 제정상 이유로 작품부문의 다양성이 결여되었으나 내용면에선 지난해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중평이었다.

상경학술 토론대회

최우수 발표상 김광수(경·3)군

본대학 상경학부에서는 지난 21일 오전10시 개교 18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4회 상경학술 토론대회를 본관 107호실에서 거행, 이날의 토론에는 정하인(경·3) 군등 13명이 참가, 토약전게에 걸어든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 당면과제와 17억5천만 달러 수출증대를위한 제방안, 무역 불평등의 해결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4회 상경학술 토론대회 최우수 발표상(경·3)은 김광수군이 차지했다.

이날의 토론대회는 정하인(경·3) 군등 13명이 참가, 토약전게에 걸어든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 당면과제와 17억5천만 달러 수출증대를위한 제방안, 무역 불평등의 해결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4회 상경학술 토론대회 최우수 발표상(경·3)은 김광수군이 차지했다.

이날의 토론에

LAFTA 제국의 대일(対日) 접근추세

김 창 환 <에스빠냐어과 강사>

중남미 제국의 대일접근 (対日接近) 이 최근에 급속히 촉진화 되고있다.

72년 1월 「브라질」의 「메르스」기획상 (企劃相) 외방일 (訪日) 에 이어 2월에는 「페루」 재무상이 또 일본을 방문했고 3월 9일에는 「멕시코」의 「에체베리아」 대통령이 수행원및 실업인등을 포함한 백명이넘는 일행을 떠동하고 방일했다. 또한 오는 4월중순에는 「파라과이」의 「스트로스네르」 대통령의 방일이예정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민족」인 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면려를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미국과 무세하여서 경제관계의 다변화로 적응하는 정책인 이라고 볼수 있으며 중남미지역에서의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저하에 따라 급부여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층 빈번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4월13일부터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제3회 UNCTAD회의가 개최킬것인바 이것도 중남미제국이 결속해서 배경계지지를 표치한 것이다. 오던데 경제자립을 찾는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들에게도 파상지식 (飽山之石) 이 아닐수 없다.

중남미에는 최근 수년간에 미국의 경치 경제적지배로부터 탈각하려는 「월미국 (脫美国) 무드」가 농후하며, 이러한 가운데 발면제도로 미국의 「달라」 위기와 국내경제의 정체로 대외투자를 삭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남미제국은 차제에 소련과 중국, 서독, 일본등 미국 이외의 각국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1년에 「라틴아메리카」의 대구주수출액=50억불) 은 대미수출액=44억불을 상회했고 「라틴아메리카」의 총수출에서 미국시장의 비율은 종래의 40% (1960년대의 10년간) 에서 1971년도에 30%로 하락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총수출 가운데 구라파시장의 비율은 32% (1960년대의 10년간) 에서 1971년에 40%로 상승하고있다.

일본은 최근에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현상을 갈파악하고 있는것같으며 여쩌면 미국의 세계적인 「미스인게이지멘트」경책을 꺼고 있는듯한 추세를 억용하여 군사적으로 「블럭」 형성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소련이라고 한다면 경제면에서 약삭바르게 「블럭」 하려는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인상마저 주고있다. 이에 부가해서 중남미제국은 특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이룬 일본에 대해 관심이 크며 일본의 림조로 무인가 자립경제의 길을 타개하려는 기운이 장하다. 금년에 접어들서 벌써 일년 중남미제국 수뇌의 방일은 그러한 일본의 경제면려에 기여하는 중남미제국의 소원을 솔직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하겠다.

「에체베리아」 대통령의 방일은 3월 9일부터 6일간에 걸파하지만 중미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는것은 1970년12월 취임이래처음이다. 중미통령은 방일목적에관해 ①멕시코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위해 일본의 발전상에서 배우고 실다, ②일본과의 기술교류및 무역을촉진시키고저 한다고 말한바 있지만 중미통령에 약 백명의 경제관계자들이 동행한 것으로보아 일본의 경제면려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실함을 강력히 시사해 주었다. 이밖에있은 「월미국 (脫美国) 무드」가 농후하며, 이러한 가운데 발면제도로 미국의 「달라」 위기와 국내경제의 정체로 대외투자를 삭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남미제국은차제에 소련과 중국, 서독, 일본등 미국 이외의 각국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1년에 「라틴아메리카」의 대구주수출액=50억불) 은 대미수출액=44억불을 상회했고 「라틴아메리카」의 총수출에서 미국시장의 비율은 종래의 40% (1960년대의 10년간) 에서 1971년도에 30%로 하락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총수출 가운데 구라파시장의 비율은 32% (1960년대의 10년간) 에서 1971년에 40%로 상승하고있다.

평하진과 일본수출 (日本輸出) 의 연불융여 ⑦멕시코의 농업, 어업, 광업, 통신사업분야에 일본과 합작사업추진 등으로 협약되고있다.

「메시코」의 인장에서볼때 일본은 미국다음가는 제2의 수출시장이며 멕시코의 무역수지가 매년 대폭적인 적자를 내고있지만 대일수지 (対日収支) 만은 언제나 흑자이다.

특히 면피에있어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입품으로서는 일본을 미국, 서독 다음으로 제3위에서 멕시코경제에 중요한 위치를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멕시코로서는 일본시장과 일본수출 (日本輸出) 의 연불융여 ⑦멕시코의 농업, 어업, 광업, 통신사업분야에 일본과 합작사업추진 등으로 협약되고있다.

「메시코」의 인장에서볼때 일본은 미국다음가는 제2의 수출시장이며 멕시코의 무역수지가 매년 대폭적인 적자를 내고있지만 대일수지 (対日収支) 만은 언제나 흑자이다.

특히 면피에있어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입품으로서는 일본을 미국, 서독 다음으로 제3위에서 멕시코경제에 중요한 위치를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멕시코로서는 일본시장과 일본수출 (日本輸出) 의 연불융여 ⑦멕시코의 농업, 어업, 광업, 통신사업분야에 일본과 합작사업추진 등으로 협약되고있다.

「메시코」의 인장에서볼때 일본은 미국다음가는 제2의 수출시장이며 멕시코의 무역수지가 매년 대폭적인

약삭빠른 「롤백」 시도… 일본
우리도 장기적 대중남미관계 추구해야
제2의수출시장 모색… 중남미제국

◇지난 3월 7일 「멕시코」 공항에서의 「에체베리아」

적극적 경제협력 모색이 그 목적
경제자립 추구는 우리도 본받아야
미국의 경제적 지배 탈피 움직임인듯

통해 양국이 협력할것④멕시코의 대평양연안 항만개축을 위한 4,200만불의 장기리차관 획득 ⑤일본연화 (円貨) 로 3천만불의기채할과 ⑥멕시코의 제철소 및 전력개발계획을위한 은행차관 등 이러한 대일수지 (対日収支) 만은 언제나 흑자이다.

특히 면피에있어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입품으로서는 일본을 미국, 서독 다음으로 제3위에서 멕시코경제에 중요한 위치를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멕시코로서는 일본시장

◇「멕시코」의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처럼가는 제2의 수출시장이며 멕시코의 무역수지가 매년 대폭적인 적자를 내고있지만 대일수지 (対日収支) 만은 언제나 흑자이다.

특히 면피에있어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입품으로서는 일본을 미국, 서독 다음으로 제3위에서 멕시코경제에 중요한 위치를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멕시코로서는 일본시장

◇「멕시코」의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처럼가는 제2의 수출시장이며 멕시코의 무역수지가 매년 대폭적인

장화대의 외유이 그 어느 중남미국에게 돗지않게 크다.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일본정부의 경제면려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고, 멕시코의 섬인개발방식에 대한 일본의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에의 멕시코의 요청 등 이러한 면려 문부의 독재적 경제에 의지이었지만 이제는 「매리지」 대통령에게 「멕시코는 호황 (好況) 이며 국민생활은 하나로단합되어 있다」 (파임지) 라고 공언할 정도로 자신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월중순에 방일한 「비프」 재무상은 바로 「브라질」의 이러한 고도성장을 주진시킨주역이다. 5년전에 재무상직에 취임한 그는 1969년의 무렵 「무히」 때에도 그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중강관의 방일목적은 「브라질」은행 「도프」 지점개설에 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체일중에 사토수상을비롯해서 일본정부수뇌및 재계관계자라는 타각력인 회담을 하고 「브라질」의 도프, 제철소건설, 광산개발등에 관해 일본측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1971년 도에 일본의 대「브라질」차관제공 투자액은 5천5백만불 이었으나 「브라질」측은 최근에 이것을 2~3배로 증가할 것을 희망하고있다. 이밖에 일본정부는 해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서 「브라질」정부에 융도를 제한하지 않는 3억5천만불의 은행차관을 해외경제협력기금 및 일본 수출입 은행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이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한가지 예로서 10억불에 달하는 「탄탄도」 자재를 일본에서 구입하게 됨 사실인데 이 자재중은 항만, 철도, 제철소, 중화학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브라질」이 관년부터 추진하는 경제개발 6개년계획에 의한 것인데 총 계획은 총액 40억불 규모인데 그중에 4분의 1인 10억불은일본에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브라질」은 일본에서의 「플란트」 자재구입외조건으로서 일본이 「브라질」에서의 신규수입 증가 (10억불 상당의 수입규모 확대), 「연」차관 도는 「엔크 론」등 일본의 자금원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에는 「파라과이」의 「스트레스네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도 가장 부패한 「군사 독재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이다. 매이 일본도 (対英一辺倒) 의 반공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과는 이주 협정을 체결하여 이민수입 (移民受入) 을 적극적으로 주진해 오고 있는등 매일관계의 긴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미 작년 10월에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해승 바 있는 「안비스」 공동시장체국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도 「칠레」 「페루」등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열하게 띠우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도 자립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의 투자및 경제협력을 기대하는 「무드」가 비상히 강하다.

우리는 일본과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관계를 냉철히 분석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관계에 편승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중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대 중남미 관계의 발전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논단

대학인과 참여의식

최 완 진 (법학과·2)

우리는 대학인이다. 대학인은 어려계층의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특권과 특권은아닌가 이해가배증어지고있다. 「학생이기 때문에—」라는 어귀가 어디든지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대구나 대학생을 잡힌한 지성인으로 사회에서 매우큰 반응하, 자기나름대로의 행동양식과 덧을 가질수 있는것이다.

대학은 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기관이라고 우리는 흔히 감어왔다. 대학인은 지도자라을 사회의 엘리트로서 자처할수 있는 공지를 가지던서, 무엇한 가치관만의 책임의식을 확고히하면서 모든 사고와 행동을 해 나갈 역할과 책임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시대에 불과 우리는 대학인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대학인이 되어야 할 사명 의식을 느끼게된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학도로서 학문탐구에 누구보다도 앞장설수 있는 근면과 관기를 배워야하고 젊음과 청춘등 마음껏 발산하는 대학인의 속세에 흠뻑 증수되어 덧있게 길줄 아는 멋과 낭만을 가져야하고 시대와 현실을 헤들어 볼수있는 현명한 통찰력과 예안 (慧眼) 을 소유할수있을때 우리는 바람직한 대학인의 상 (像) 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요사이의 대학인들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되어 버렸는지 모를일이다.

거교복인 학교행사가 있을때마다 술판벌이 시비가 나오고, 배사의 학교일에 그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고도 사고와 행동양식이 천편일률적으로 무사 안일주의만을 택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모든것을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그 책임이 학생들 자신에게만있지는 않을것이다. 주최자측의 준비부족이라든가 생각이 덜미친 부분이 충분히 있을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주인은대학인 자신이고보면 그 책임을 어디다가 피할수가 없는것이다.

비근한 예로, 요사이 대의원회에서는 학생회칙 수정에 온갖 심혈을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수차에 걸친노력끝에 어느정도 완벽한 초안을 작성해 놓았다.

대의원 회원들 거쳐 동파시키기려 최종적으로 좋은 의견과 지도편달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도 학생들은 「네맛나 모른다」 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원은 손가락으로 셈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듯 대학에 있어서의 모든 학생 활동이라든가자질향은 몇몇 학생회 간부들의 솔직임 인도는 도외시 놓기는 한것이다. 대부스의 주인인 모든 대학인들의 성원과 협조가운데서 하나의훌륭한 과업들이 모두열매를 맺어 나갈수 있는 것이다. 일부러 어느 논단에서 학생의 참여의식에 대해 써놓은 것을 본적이 있다. 그 논단은 학생들의 참여의식의 정도를 피라밋 형으로 표시하면서 위로부터 정치력인 면, 사회적인면, 문화적인면의 순으로 열거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느것을 중시하고 경시하느냐에 비중을 두는것이 급교 아니고, 그러한 한 면을 통해서든지 우리 대학인들의 면밀하고도 남낭한 솔이앙는소리를 전해 줄수 있어야 하겠하는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결교 큰것, 실망천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대학인은 우리가 성계할수있는것부터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것이다. 우리는 어떤 전단의 구성원이 되었을때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결코없어지는 결교 안될 곡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방시 의식하면서 우리에 대면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학인들의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많상 관심을 가져고, 냉철한 이성과관단을가진 현명한 대학인으로서, 중고 와 관람을 아끼지 말아야할것이다.

그리하여 대양씨 빛을 거울에 반사한 빛으로 요인하는 우매한 대학인이 아닌, 서로가 이끄고있주고 이끌어 가면서 타당이 중계가능 중지를 가진 대학인으로서의 자세를확고히 해야할것이다.

영어뮤지칼 단평「Pirates of Penzance」

1, 2일 양일에 각 2회에 걸쳐 전4회의 영어뮤지칼 「The Pirats of Penzance」의 공연이 강제숙에 마임으로써 제18회개교기념행사가 모두 끝난셈이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맹연습을 실시해 온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는것이 중론이고 보면 그동안 쳐 큰 노력을 경주해 왔던 학교 측에게나 방과후를 거의 매일 뮤지칼 연습에 할애했던 출연자들에게나 형사를 의적으로 주관한 학생회측에나 클레멘저 교수를 비롯한 여러연출자들 및 기획진에게 격려의말을 아끼지 않고 싶다.

19C의 영국의 Penzance 라는 해안이 배경이 되어 Pilot (항해사) 가 Pirate (해적) 이라 오인됨에서비롯된 희극 중 유우머러스한 스토리의 이 뮤지칼은 영어 원전 「해학의 빛」이란 제목으로 독요정기잡지를 가졌다.

○……「종사단의 해아카데미」에서는 25일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설계", "나는 왜 대학생이 되었나", "나의 KUSA에 거는 기대 등의 주제로 신입회원 8명의 Report 발표회를 가졌다. 35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는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학생들의 방청도 공개되었다.

○……에로타에선 오는 2일 "심학은풍"이란 주제로 오후 5시30분부터 연합연구회를 갖는다고 하여 지난 카니발때는 국악예술학교학생들을 초청하여 국악공연을 가졌고 보물집, 공술대회도 주관한 바 있었다.

○……M.R.A에서도 카니발 행사의 일환으로 Sing out 공연을 펼오여 27일엔 "대학생의 빛"이란 제목으로 독요정기잡지를 가졌다.

○……SCA에선 카니발도중 open cafe를 열어 15,000원의 자금확보를 할수있어 운영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고하며 신입회원이70여명이나 새로하여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는 실정

그때서 항상 불만 많이 전부인듯한 각 서클의 · 인상을 없애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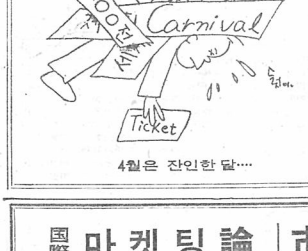
써클동정

○……KUSA에서는 지난 25일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설계", "나는 왜 대학생이 되었나", "나의 KUSA에 거는 기대 등의 주제로 신입회원 8명의 Report 발표회를 가졌다. 35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는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학생들의 방청도 공개되었다.

○……에로타에선 오는 2일 "심학은풍"이란 주제로 오후 5시30분부터 연합연구회를 갖는다고 하여 지난 카니발때는 국악예술학교학생들을 초청하여 국악공연을 가졌고 보물집, 공술대회도 주관한 바 있었다.

○……M.R.A에서도 카니발 행사의 일환으로 Sing out 공연을 펼오여 27

외대만평



4월은 잔인한 달….

〈빈의자〉

어느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된 친구를 만났다. 함께 대학이란 것을 다닐 때와는 많은 차이를 발견한것은 물론이요, 어떤 이질성마저 느낄정도로 그는 사회화 (?)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과 두달사이란 시간이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것임에 틀림없다. 잡게 빛난 머리, 탐정한 양복에 규격대로의 넥타이가 각을 조르듯 졸여매여 있고 얼굴에는 파기 (和気) 와 투지를 잃은 피로한 소시민의 인상만이 남아있는 꼭 꼴다. 그러나 결교 그가 주출해 보인것이나 사람을 신앙시킬 정도로 무터하진 않았지만 대학시절의 그와는 어려작도에서 발파적 일다움것에 전심이 쏠린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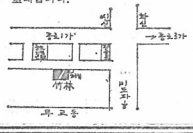
여기에서 대학생활이란 학연한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하나하나들어 음미할 가치가있을 것같다. 대학이란 곳도 사회의 일부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질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의 사고방식, 행동그 모든것이 다른 어느사회보다 자유스러운 계통에이다. 각 개개인의 개성대로 인격을 쌓아가고 가치관을 확립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대학의 문을 나서면 모든게 마음먹은대로 되질 않는 모양이다. 상하, 주종의 서열을 엄격하고 격식 또한 높은 벽을 가로질러 놓음으로이 무형하며 그럴싸해 보인 방법은 옳든 그르든 회유되질 않는것 같다. 기성질서는 젊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수가 많다. 대학이란 자유로운 곳 경에서 놀던 물고기가 직장사회란 험하고 가파른 대해 (大海) 로 나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숱한 우여곡절이 막불 것은 명약관화 (明若觀火) 한 일이지만 그 많은 우여곡절이 기성질서에 대한 무중으로 관나계립해 그사회의 발전을 있을수가 없다. 단지 고무한 인습만이 탁아오는 세대를 계속 괴롭힐 것이며 새세대역시 아련처럼 스미는 인습의 영향을 받아 여러한 비판의식이 무디어지고 새로운 의식은 장건시 질씨마냥 아득하게 보일것이다.

대학인이란 어느 의미에서는 밝힌의 개기라고 볼수있다. 서로의 주장이 벽에 부딪힐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다. 대립 자체보는 단절밖이 초대립론 발전원인할 기여하며, 그러나 일방적인 양보 또는 굴복은 위험을 수반하게 되기가 쉽다. 선의의 경쟁, 허심탄회한 대화가 현 사회에서 발전할수있는 아이윤인것 같다.

친구들 보내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들굴, 그 벽파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일까?

国際 마켓팅論 博英社 값 1,500원
市場調査論 博英社 값 1,500원
절찬리 각서점에서 발매중
韓国外国語大学 무역연구소 소장
安台鎬 교수著

竹林
여러분의 협음과 지성을 대나무향기그윽한 환희의 집 「죽림」으로 초대합니다.
◇초대의 말◇
무언가 잃어버린것같은 心情
무언가 참고만 싶은 애절한心情….
어언 봄이군요
봉파대돌어 백에게을 평온을
잠오려 노력하십시오.
한과 낭만과 웅위 (훈련의식·가곡·관솔) 을 겸비한 上學의 집 「竹林」주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竹林의 자랑◇
1. 숲 : 극연주, 극주
2. 안주 : 여러분이원하시는 무엇이든 축제에서 최고의맛, 최저의 가격으로 봉사해드립니다.
3. 본竹林은 지성의집입니다.
(대학생정영과 대학생상면)
4. 본竹林은 보다높은 문화대화를 위해 향기그윽한 생활사를 마다하고 있습니다.

竹林주점

교양강좌
보다 나은 情緒를 누릴수 있는 品格높은 서예회원을 모집합니다.
붓글씨 묵화 현재 접수중!! 개인지도 시간제한 없음 펜글씨 일요서도
장사 : 명K대학교 서예담당교수 작품 취효대회 심사위원
★이론과 심기조절 (正統한인지도) 필요일과 공유일반 지도
일요서도반은 토요일과
아담한 전당에서 취미와 교양을 살리는 건전한 생활인의 수양을 권합니다
일본어
리본 프라워
영어 회화
일 본 어
일 반 상 식
한 문
★시간 자유 선택
★각반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저렴한 학비
★가장 권위있는 강사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학을 바랍니다.
★매월 1. 10. 20일 개강 (수시접수가능)
해동서예학원
<부설 J. T. I>
휘경동 트라미 중소기업은행 4층
☎#5061~6 #4061~6 (교환10번)

현상작품모집

5월31일까지

마감 대폭 연기

제10회 외대문학상

외대인의 문학풍토 개발과 창작활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온 본외대문학상은 이번으로써 10번째를 맞았습니다.

경서개발과 나아가서 한학 문단에 참신한 인재배출을위해 노력해온 본사에서는 1970년 본대학의 특성을 강안 년역부문을 추가하여 장르제한의 성립을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각부문 가작을 폐지하므로 명실공히 상의 권위도 굳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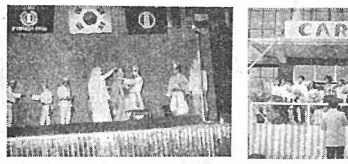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분발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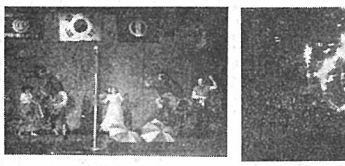
◇소 설 (200자원고지 70매내외) 25,000원
◇ 시 (1인2편이상) 10,000
◇번 역 (제한없음) 15,000
◇수 필 (30매내외)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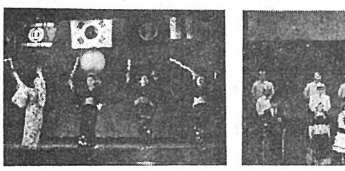
마 감 1972년5월31일
발 표 1972년6월중
◇심사위원 추후발표
◇제 출 처 외대학보사

외 대 학 보 사

축 제 화 보







개교기념아치.
승어과 공연.
힘두스탠니만 공연.
로르투깔어과 공연.
일어과 공연.

이태리어과 공연.
「노래는 즐거워」 실황.
M.R.A.카니발 연상.
캠퍼스 화이어.
네덜란트어과공연.

=개교 기념행사=

세계민속예술제전,카니발 조감【鳥瞰】

세계민속예술제전 본대학의 이미지 부각에 큰공헌
카 니 발 학생 참여의식결여는 큰 문제점

○……본 대학 개교 18주년 기념행사의 피크는 20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베풀어진 제2회 세계민속예술제전의 개막과……○
○……함께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18일 학장배정탈 축구대회의 결승전, 19일 아카데미 날 시민공개강좌……○
○……가 있었고, 그 이후 21일 시화전과 상경학술토론대회, 사진전·미술전이 열렸는가 하면 22일에는 카니발이 있었으나한……○
○……마디로 말해 겨우 평년작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날로 발전해 가는 외국어대학과는 달리 축제에 약한 외……○
○……대의 이미지를 또한번 박아 놓았을 뿐이다. 단지 세계민속예술제전만이 성황을 이루어 성공리에 막을 내렸으나 외부……○
○……에 비친 절친에 만족할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톺아보아 보다 알뜰하고 흡족한 대학축전을 위해 금번……○
○……본 대학 축전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장꾸준 시민회관 앞 오후 1시50분. 시민회관 쪽 택기에서 흘러내려 나붙은 현수막 세개중 하나가 눈에 띈다. 「세계민속예술제전」이란 음직한 글씨가 광파문 매표실 창력 반짝하게 걸어있다. 주변에는 사람들로 붐벼 자동차가 크락슨힘에 의지하여 겨우 빠져 나간다. 초만원이다. 입구에는 진행위원들이 입일이 겁표를 하여 입장지지 잠자여 한력 얼지리 입장을 시키고 있다. 20분전만해도 전국이 떡을카와 그 대표 입장을 시켰으나 2시가 가까워 오자 갑자기 늘어난 입장객의 수에 당황하여 입장권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어 두번씩 인쇄하여 틔무이었이 이중지출을 해 말썽을 일으킨 것도 문제려니와, 입장권도 발생을 방지고, 시민회관의 수용인원을 무시하고 6천여장을 배부한 것이 혼란의 원인인지 갖았다.

종목별로에서는 약 일주일 전부터 세계민속예술제전을 위해 각과별로 연습을 거시하고 준비를 위해 눈코뜰 사이도 없이 분주했으나 학상 계획을 놓았에 두고 성장에는 기관을 잡추지 못했으나 일러주지를 위한 정비에는 말랑하였다.

2시가 지나 몇분후 관객석의 불이 꺼지고 사회의 개막인사가 있은후 곧 제전의 막이 올려졌다. 학생회장의 인사말이 생각된 것은 절차상 이가빠진 느낌이었다.

프랑스어과학과의 개막무용이 파아란 조명을 받으며 밀어지고 막수갈채가 쏟아졌다. 지난해와 곡 같은 내용이었다. 이어 중국어과의 차례, 민속무용중 연습이 부족하여 무대에서 몇차례 실수가 나타났다. 주한 파고학생들의 18기 시범은 파고학생 출연이라는 명목상의 의의뿐이었고 넘쳐다본 흥미꺼리는 되지못하였다.

이어과의 경우 본 대학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고 비중이 큰 과로서 5월에 공연되는 뮤지컬의 한 장면만을 기획했다는데 실망이 있다. 뮤지컬외에도 일마든지 실속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밖에 잃어과 학생들의 작성이 요구되며 입분 쥬의 내용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탈어과는 지난 해에비해 인기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았으나 그럼대로 의미있게 볼 수 있었으며 포르투갈어과는 외국인 2명이 참석 출연, 토인으로 분장한 학생등 다채롭게 무대를 장식, 특히 토인춤이 관중의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서는수마트라의 민속 춤인 수산춤과 외인꼬마가 출연 재롱식인 무언극으로 무대를 장식하여 관중들의 여프란 합석 받았다. 이어프랑스어과는 사랑의 결투마는 단막극으로 짧은 연습기간중이나마 힘든 연출을 해내어 그럼대로 수준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종 출연자 최다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 연극의 줄이 민속춤이나는 가시들힘 평이 나쁜기도 한 절보면 환호만으로 인기를 측정하긴 어려울것같았다.

토이차어과는 김홍철씨를 초청, 독일근처 알프스지방의 요들쏭으로 관객에게 포뜻한 느낌을 주었고 합창단이 싹을한 독일국기무늬의 넥타이가 시선을 끌었지만 합창만으로 시중된것은 좀 더 깊은 기획이 아쉬웠다는 원망을 남기게 갈었지만 일부에서는 파연 그 연식의 줄이 민속춤이나는 가시들힘 평이 나쁜기도 한 절보면 환호만으로 인기를 측정하긴 어려울것같았다.

토이차어과는 김홍철씨를 초청, 독일근처 알프스지방의 요들쏭으로 관객에게 포뜻한 느낌을 주었고 합창단이 싹을한 독일국기무늬의 넥타이가 시선을 끌었지만 합창만으로 시중된것은 좀 더 깊은 기획이 아쉬웠다는 원망을 남기게 갈 장 긴 프로그램을 혀은 에스파냐어과는 출연자, 공연시간, 통음원 악기수에서단연 수위를 차지하여 폭극적인 면을 보였을 뿐아니라 플리무용단을 초청 폴바랭고음으로 관중을 매혹시켰고, 네덜란트어과와 경우 적년과 올해, 과의 신설과 함께 어려운 사정하에서나마 네덜란트 대사관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자리를 마련한데서 토다큰의 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밖에 이탈리아어과와 민속무용과 합창등 성숙된 공연대도를 엿볼 수 있었으며한 남아가 억식 콧뿌리는 소녀라는 민속무용 그리고만 싱요로 부녀감 장시했다.

타이어과는 당초 주관 태국문화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스피고 모한 박약기의 반주프 민속춤이 중점계 공연되었다.

이리하여 장장 3시간40분의 민속무용과 민속춤을 성숙된 공연대도를 엿볼 수 있었으며한 남아가 억식 콧뿌리는 소녀라는 민속무용 그리고만 싱요로 부녀감 장시했다.

타이어과는 당초 주관 태국문화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스피고 모한 박약기의 반주프 민속춤이 중점계 공연되었다.

이리하여 장장 3시간40분의 민속무용과 민속춤을 성숙된 공연대도를 엿볼 수 있었으며한 남아가 억식 콧뿌리는 소녀라는 민속무용 그리고만 싱요로 부녀감 장시했다.

타이어과는 당초 주관 태국문화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스피고 모한 박약기의 반주프 민속춤이 중점계 공연되었다.

이리하여 장장 3시간40

진정한 대학축제위한 각성 아쉬워

졸속한 기획 하루속히 시정토록

각과별 격차줄이고 내용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신노진 과로서 처음 참가하는 힌두스탠니어과와의 우 인도의 결혼풍경을 묘사하여 좋은 반응을 일켰으며 단연 장려상감이 될 것 같았고, 러시아어과의경우는 러시안 민심에서 흔분한 연습으로 주입없이 저리하여 만장의 박수갈 받았다.

일어과는 힘력 춤과 합창이 합쳐 프로그램에 박력되었으나 연습시 효율이 떨지않아 합창이 생박된 것 이다.

이탈어과는 노래 즐거워 연습을 거시하고 준비를 위해 눈코뜰 사이도 없이 분주했으나 학상 계획을 놓았에 두고 성장에는 기관을 잡추지 못했으나 일러주지를 위한 정비에는 말랑하였다.

2시가 지나 몇분후 관객석의 불이 꺼지고 사회의 개막인사가 있은후 곧 제전의 막이 올려졌다. 학생회장의 인사말이 생각된 것은 절차상 이가빠진 느낌이었다.

프랑스어과학과의 개막무용이 파아란 조명을 받으며 밀어지고 막수갈채가 쏟아졌다. 지난해와 곡 같은 내용이었다. 이어 중국어과의 차례, 민속무용중 연습이 부족하여 무대에서 몇차례 실수가 나타났다. 주한 파고학생들의 18기 시범은 파고학생 출연이라는 명목상의 의의뿐이었고 넘쳐다본 흥미꺼리는 되지못하였다.

이어과의 경우 본 대학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고 비중이 큰 과로서 5월에 공연되는 뮤지컬의 한 장면만을 기획했다는데 실망이 있다. 뮤지컬외에도 일마든지 실속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밖에 잃어과 학생들의 작성이 요구되며 입분 쥬의 내용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탈어과는 지난 해에비해 인기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았으나 그럼대로 의미있게 볼 수 있었으며 포르투갈어과는 외국인 2명이 참석 출연, 토인으로 분장한 학생등 다채롭게 무대를 장식, 특히 토인춤이 관중의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서는수마트라의 민속 춤인 수산춤과 외인꼬마가 출연 재롱식인 무언극으로 무대를 장식하여 관중들의 여프란 합석 받았다. 이어프랑스어과는 사랑의 결투마는 단막극으로 짧은 연습기간중이나마 힘든 연출을 해내어 그럼대로 수준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종 출연자 최다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 연극의 줄이 민속춤이나는 가시들힘 평이 나쁜기도 한 절보면 환호만으로 인기를 측정하긴 어려울것같았다.

토이차어과는 김홍철씨를 초청, 독일근처 알프스지방의 요들쏭으로 관객에게 포뜻한 느낌을 주었고 합창단이 싹을한 독일국기무늬의 넥타이가 시선을 끌었지만 합창만으로 시중된것은 좀 더 깊은 기획이 아쉬웠다는 원망을 남기게 갈 장 긴 프로그램을 혀은 에스파냐어과는 출연자, 공연시간, 통음원 악기수에서단연 수위를 차지하여 폭극적인 면을 보였을 뿐아니라 플리무용단을 초청 폴바랭고음으로 관중을 매혹시켰고, 네덜란트어과와 경우 적년과 올해, 과의 신설과 함께 어려운 사정하에서나마 네덜란트 대사관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자리를 마련한데서 토다큰의 의를 찾을 수 있었다.

총학생회칙 개정의 내용및 그배경

—이 강 혁 조교수 <법학과>—

현재 우리 대학에는 제1장 총칙, 제2장 기구, 제3장 선거, 제4장 재정 및 부칙의 장별로 구분된 「한국외국어대학 총학생회칙」이 있다. 그 내용을 검토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제2장은 도다시 제1절대의원회, 제2절 학생회, 제3절 여학생회, 제4절 각 학과회,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로 세분되어 있고, 본문 총 59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놓수 있다.

이 학칙은 물론 우리의 대인이 이상적합적인 의식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그 생활의 발증이기도 하다. 즉 독일 의법학자 기이트케는 「사람이 사람된 소이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라고 하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의 존재는 타인과의 공존에 있다」 고지 력한 바와같이 우리 인간은 본능적 사회생활을 하는것 보다는 일정단목적을 정립하여 그 목적을 추구하는 합목적적, 의지적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우리 의며인은 모두가 인간사회의 제현상에 관하여 그린 리를 추구·구명하려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와같이 높은 이상과 목적을지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기때문에인써나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창조되있 정한 기준, 규칙에 의하여 영위되어야 하는 소이가여기에 있다.

옛일진 학생회 간부들로부터 현행 총학생회칙개정에 관하여 지도적 상담을 의뢰 받을 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그 학생간부들로부터 종회칙개정조항과 그개정이유를 듣고 개정을 돕고 지도한바가 있다.

모든 법규범의 운영의모보다는 수시적, 임기응변적 전술자 편의적 개정을 실이하는 필자도 그 학생간부들의 개정이유를 듣고개정에 대한 조언을하였다. 여기에 그 개정이유를 상세히 인급할 수는 없으나 요약하면 첫째로, 「사회는 사람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창조한 자유의사의 법칙에의하여 지배된다」 고 주장한 칸트의 지적과 같이 종학적에 대한 우월을 통하여 학생들 자신이 일은 경험적 지식과 자유의사의 반영이라는 점, 둘째로, 종회칙은 학생들이 그 의욕하는 바를 발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의 준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합목적적임 가지관단을 하게되는 가치법칙이오 또한, 민심을 조화한 이상세계를 향하여 현실을 극복하려는노력의 기준이라는 점, 셋째로 과거 대학가 일반에서 학생임원 선거에 대한 보편적 비판·비난의 표적이었던 반학선거·부패선거를 가능한한 예방하기 위하여서도 하였다는 점, 넷째로 우리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종학생회의 운영을 보다 능률적,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정이유에서 현행 총학생회칙의 개정안이 성안된 것으로 믿자는 알고 있다. 필자가알고 있는 한에서 종개정안의 몇가지 특기할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다. 첫째로, 제1장 총칙규정중 제5조 (기구) 총학생회의 대표를 학생회장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 함으로 나타 명문화 하였다는 점, 둘째로, 제2장제1절 대의원회의 규정중제10조 대의원회의 정기총회를 년2회에서 년4회로 늘였다는 점과 제14조의 부의장을 현행 2명을 두는 제도를 개정하여 1명을 두려고 하였다 는 점, 따라서 제17조 (회장의 지위) 의 회장 유고시 그 대행권이 1명의 부의장, 사무국장의 순위로 계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대의원회의 운영을 통한 경험에서 그의 보다 합리적 운영을위한 노력인것 같다.

셋째로 제2장 제2절 학생회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보면 비교적 많은 개정을 시도하였다. 즉 제27조 부회장의 지위를 강화하여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종무부장직을 겸임하게 하였다는 점, 제28조 임원선거조항은 그 1항에서 현행 회칙에 의하면 학생회장부회장은 전부표자의 3분의 1이상을 득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을 4분의 1이상으로 내리는것을 시도하였고, 동 4항에서 현행 회칙에는 전 1항에 의한 직접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간접선거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시간적 경비를 이용하여 있을지도 모를 추후의 사설 예방책으로 직접선거에 의한 개표확정일로부터 2일이내에 간접선거의 실시로 개정하여 장제적 (?) 입지한 시간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음 제30조 학생회외업 명부서에 현행 5개부서에서 기획부를 신설하여 6개부서로 개정하려고 하는 점, 제31조 (임원임명) 는전기 제27조의 개정과 3항을 신설하여 총무부장을 겸임하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되는경우 그 총무부장의 직무대행을 총무부 차장이 행하도록 한 점, 제32조 학생회의 임무조항에 8항을신설하여 학생회는 자체결정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을 규정한다므로써 학생회 권중의 능동성, 효율성을 보장하였다는 점, 제33조 졸업준비위원 회조항은 현행 회칙에 의하면 심침이적은 부회장에게 만 배력 고려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회장이주관하도록 개정하여 졸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 점 등 학생회의 규정조항을 많은 개정안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다. 빈째로, 제2장 제3절 여학생회규정에 대하여는 제36조 여학생회의 활동규정중 동조 2항 여학생회의 정비를 현행과 같이 학생회비중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그비용은 현행 12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개정하므로써 여학생회의재정자립을 통하여 독립을지닌 여학생의 활동에 매력을한층, 더섰네, 제2장 5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중 제41조의 동위원회 구성을 현행 각학과회장으로 한것을, 대의원회, 학생회, 여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제42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회 외장이 겸임하도록 개정한 점, 여섯째로, 제3장 선거규정중 제47조 학생회장부회장, 각과회장, 여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하여 현행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학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자를 전 이수과정을 통하여 평균 B학점이상인자로 개정하려는 점, 이것을 제49조 (대의원 자격) 를 신설하여 그 제한을 대의원에게도 준용한다는 점, 그리고 제48조 대의원의 정부외장은 11월 정기총회에서 3, 2학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종회칙 전반에걸쳐 구조상 체계상 약간의 미비점이 있음을알면서 총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우선 학생간부들의 요청에만 급급하였음을 밝히고 아쉬움을 앞으로의 과제로 하고저 한다.

회칙 미비점 다소보완

학생회장투표자 $\frac{1}{4}$득표로 당선가능
대의원회 정기총회 년4회로 늘려

할-네 *써클탐방

남관 6층까지 밀려온 울타리가 행당스를 (608호실) 에 들어섰을 때에는 미리 예고해 두었던 반인지 회장정하경 (병3) 군과 벌써 행당스회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67년3월15일 창립. 그해 4월에 박대에서 제1회 사진전을개최한 이래 올해 4월20일부터25일까지 도서관로비에서 공개되었던 사진전이 모두 9번째라고해 기하면서 정하경군은 창립당시보다 행당스에 대한 의미생김보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퍽 다행이라고 행당스의 활동편향을 들려주었다.

매마다 봄, 가을 두번씩 열리는 행당스사진전은 봄에는 학내에서 가을에는 시내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시내에서 개최되었을 삼려보면 68년에는 국립광보관에서 제3회 사진전을, 69년에는 여총회당에서 제5회 사진전을, 71년에는 코스모스에서 제8회 사진전을 각각 개최했다고하는데 전시때마다 일반의 상당한 관심을 끌어 일반사진장지에서행당스전시작품을 크게 다뤘다고.

또한 매마다 하기방학때는 회원모두가 촬영을 떠난다고 하는데 68년 본대학에서 처음으로홍도촬영을 떠난것이 일반사진작가들에게 홍도를 알리는 계기가됨이 지금은 홍도를 찾는 사진작가들이 많다면서 이것은 익히가 겨밥한것이 아니냐며 정군은 반문한다. 하기방학촬영 촬영은70년의 울릉도 촬영을 제외하고는모두 홍도를 택났다면서 홍도회에 경이 사진촬영에올라고장조한다.

그러면서 정군은 지난 3월25일 전라북 행당스주최로 전국대학사진동우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이 동우회에는 고려의 호랑회, 서강대의 서광회, 서울대의Focus, 연대의 연영회, 숙대의 숙미회등 서울에만도 11개 대학이 참가한다며 지난 4월1일부터 일주일간이 전국 대학 사진 동우회의 첫 평시로 한국사진화랑에서 역시 행당스주최로 대학사진제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전국대학사진동우회의 활동을 외대중심으로 이루어질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지리에 같이 참석해준 진 (前) 회장 손기상 (영3) 군은 행당스회원 상호는 언제나 가족적분위기로 두엇보다도 사진인구저변확대를 위해 각자 노력하고있는데 하나의 사물을 보는데있어서도 심미안적으로 대하여야만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얘기한다. 이어서 그는 행당스는 파써클과는 달리 졸업앨범을이면 촬영기술과 인화기술을갖게 됨으로 누구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의 얘기가 끝나자 정하경군은 매주 일요일 야외촬영을 세과트로 나누어 떠나는데 이외에 이 끝나면 수요일, 행당스를에서 작품품평회를 열다면서 지난주 (30일) 에는 학학 사진부원과함께 역시 의며주최로 제1회 모델촬영 아유회를 즐겁으로 떠났다고 한다.

장가에 봄의 햇볕이 서서히일어져갈을 의식하고 기자가 학교당국에 요망하고 싶은것이 없느냐고 묻자, 회원들은 거의 공식에 곧 암심을 학교에 설치하게 되는데 학교의 재정적보조가 있으면 훌륭다면서 회원들 지비로 반드는 암심의 고통을 덜어놓았다. 또한 학교에 상설화랑하나를 있으면 다른써클들에서도 이용할수있지 않겠느냐고 도서관로비는 협시장소로 부족당하다는것을 상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대학생들중사진기를 갖고있는 학생들은 영상스에 가입해주길 바란다며 사진에대해 외문나는 학생들은 언제고 문의해주면 성의껏 답변해주겠다고 친절히 말했다.

精解 韓日辞典
斯界의 權威者가 오랜 刻苦 끝에 펴낸
國內 唯一의 決定版,
드디어 日本市場으로 進出!
金素雲 編著 값 1,800원
徵文出版社 72-4897, 73-8740, 74-9147
朴成媛 編著 값 1,500원
完璧 日韓辞典

1. 品質·品質을 보증받는 별표전축
2. 信用·信用을 生命으로 정찰가격
3. 傳統 : 15年의 歷史·生音의 殿堂
問題는 3가지
輸出業体
별표전축天一社
本社및工場 : 서울·城東區 中谷洞 189 TEL : 55-2631~3
直賣店 : 서울·鍾路2街33(파고다공원앞) TEL : 74-7141~2
展示場 : 서울·청량리노타리 대왕코너 TEL : 97-1014
展示場 : 서울·영등포구 시장노타리 TEL : 62-0377
별표전축天一社는 15年의 전통과 수출업체로써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읍니다.
CT5000 AM / FM STEREO
CT 4000AM / FM STEREO 정찰가격 41,400원

문단에 활약중인 외대인

노트

이 유 경

□리자소개□

□불어과 6회, 1959년 「사상계」에 시 「과수원」으로 추천, 문단에 데뷔. 시집 「일상들의 인가」 최근작 「백결 4가(百結四歌)」 (현대문학 3월호). 현재 조선일보 기자.

<1>

가화바다의 자삼소식을 듣고 어떤 삶의 감시같은걸 떠져리게 체험한다. 주하게 바껍하면서 사는 모든 동물적인 환경을 인간이기에 짧수 있는 자삼이라는 지적인 거부와 초월화수단. 생명이란, 몸에 깊일이 가슴이 되자 떨어져 버리는 편안한 뇌리이상의 평박하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자각하게 된다. 주하게 사는것보다 원려의 불꽃한 시라도 남기고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주하게 늙어 슬픈 리어왕이 되느니 보다 고민하는 현인의 죽음 같은걸 떡함수 있는 그런 수단을 세득사고싶다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2>

비루하여 시름 없으면 깊이 취하게 된다. 생명의 몽중같은 것이다. 「인간은 영장과 미음으로 영혼을 죽어버리다」 같은 귀절을 읽고 있으면 나는 시간 깊은 고뇌를 수만하지 않고 선 불가능하라는 자책에 사로잡힌다. 간혹 속절적인발 선으로 그 발자국 떠져 남기고 지난 시간, 혹은 자아에의 어떤 흔들도 없이 평복으로 따라다닌 일체의 시간이 현오스럽기도하다. 모름지기 시인은 보르통이 말한것처럼 「선택원자」이며 선택원자가 사물과 인간에 아무 고뇌도 일으켜 선택된 자료서의 원려는 흙바닥에 떨어져 진구는 먼명이 잡고 만다. 잔고로 오늘날에 있어로 고뇌하는 시가 아쉽다. 진심로 고뇌하는 시는 인간의 잠성이 중요한 자양과 중저적인 생명잠의 곡도를 일으켜 주기 때문이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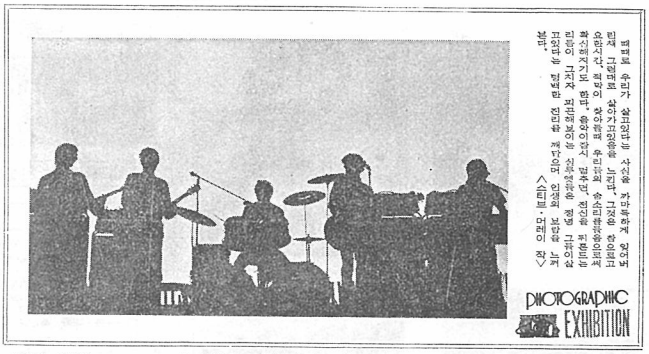
<3>

사름에 친한체 아근은한다. 남들이 좋근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남들이 퇴락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나의 역부. 이웃들에게 나는 이상한 직업인, 혹은 심심자로 지적된다. 이렇게 아근을 하면서 새벽에 곤히 잠든 도심을 절어가면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유동기가 되어 버린 경찰차, 쾅 들려 버린 것 같은 공허한 눈빛와 연체동물 같이 흐느적 거리는 몽상가, 그런 사람들은 오다 가다 맛기 때문에 늘상 피로하다. (물론 그들의 과국은 김장도에 있어 면역성을갖지 않는다) 그러기에 반전도 한 크다.

유달리 방약했던 몽상가는 업마의 품에 업혀 방췌에서 자주 타설었다. 엄마의 등에 귀를 대고 방췌에 가면 길에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방방들며 춤무 (円舞) 를 추고 있었다. 그는 내려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겠다고 떼를 썼다. 엄마는 등이 아프서 안됨다고 그랬던것 같다. 그때 업마의 품에면 그의 귀에 울울 울리면서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스러 어린 몽상가로서는 면연할 수없는 감동을 남겨 있었어 주었다.

카뮈도 없이 서럽고 버림받은 것 같아 그만 화박 울음을 터트리고 싶었던 느낌이었다. 그런 어릴 때의 기억들이 어떠게 그의 품에 배어 버린 분위기 「사건」에 매달려 정신이 지리멸렬 지진 머리를 들고 인간이 있던 거리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미지유럽의 거리같은 도심은모 지속같기만 하고 나는 왠지 상처는 것이, 괴롭고도 유모려스하게 느껴져서 울고 싶다. 아근을 한 이튿날은 종일 감퇴 진다.

종수의 귀밑으로는 아내의 그룹부시는 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같은 것이 아득한 곳에서 들린는것 처럼 울려갔다. 그런 감유 자고 황홀부던에 긴낮 잠에서 깨어나면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도할 수없다. 무의미한 한오로부 의미만 생활이다. 부가치한 삶의 도식이다. 죽은나무에 꽃피우기보다 더참담한 일을 나는 평복으로 바라다니고 있지않는가 말이며. 모든 조건에서 발출하여자유롭고 싶다고 사흘에 한번 아근을 하고 귀가길버스속에서 노상 짓껍는 입버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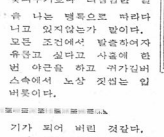
<사진 · 프레임>

PHOTOGRAPHIC EXHIBITION

필요한 것이다.

모멋거지가 돌아서면 음서년스럽던 그 거슬낌에있고 깊은 곰속의 착각에빠져들어 갔었지.

그러나 한순간 퍼뜩 꿈이 깨였을때 그는 얼마나 깊은 심의 (失意) 에 몸뚱



<컷 · 이덕주>

마주친 사람에게는 심사리 마음을 드러내 놓지 않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그들의 생리다. 그런데 그들이 은밀마음을 기울일 때는 심로 어려운 결단과 외지가 필요한 것이다.

심로 그에게는 가장 (可恐) 겁은 열정을 기울였던 이. 그나마 느끼는 능력이 없는 여자에게 밟이다. 느낄 수 없는 사람을 갖지 고 귀한것을 권밀할 능력이 없다. 제거가 진주를알아보지 못하듯이 흙은 그들을 파인을 사랑할 능력도 없는것이다. 단지 인간이라는 외형을 갖춘 거울앞에선비계명이일바름이다.

입어버린, 몽상가의 위대한 자존심. 진심로 그것은 평복이었을 시절 제저에게 주어버린 위대한 자존심이 있다.

몽상가는 어떨수 없이자꾸만 지나온 길로 눈길을 보내며 서려워 한다.

무감한 어족 (女族) 들이 들렐치는 유일의 거리에서나, 벽화심의 에스컬이트위에서, 버스속에서 마네킹같은 여인들이 군데군데서하품을 한다. 한치의 정 (情) 의 뿌리도 내밀수 없는 아스팔트같은 여인들이 혹독한 냉정 냉신스런 웃음을 웃는다.

그러나 몽무는 사람은정일말 울을 모른다. 다만의 부표인간살자로서, 춤무 (円舞) 에 뛰어들지 않고 한쪽에서 지켜보고있는 여의 자로서, 머물어 공감할 이가 없는 단독자로서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뿐이다.

흐름 (流転) 은 끝도없고 일조의 자취도없이만유 (萬有) 에 공평하게 자유 한다. 마치 미리마련된 계획표아래 비롯듯이 이제 바로 그때가이르렀나보다.

흐름이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매듭을 지어 탄막을 이루듯이. 그것은 그것대로 미리예정된 장 (章) 이라도좋았다.

꿈꾸는 사람이 꿈에서 깨어 났을때 어차피 슬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용히 흐름을 가다듬고 자칫 속으로지려는 고개를 젖혀이 게들고 꿈꾸는 사람은 잠시 꿈에서 깨어있는 파국의 순간을 대피전 (大会戦) 전야의 사열관의 마음으로 맞는다.

그러나, 우리의 몽상가는 권도라의 상자에 마지막남은 것으로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꿈 속에 빠지리라.

학생 수필 꿈꾸는 사람

김 호 성<에스빠냐어과·4년>

때가 이르렀나 보다. 자기의 유년을 극희 (劇的) 으로 보냄, 아두리 등어도 신선한장자으로만 뜨려지던 전사람의 이야기와 설화 (雪原) 에 빈긴 선동 및 행렬과 세사상의 이야기와 휴비물가의 죽음등.

그런것들에에 기억이 없는 그에겐 처음히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에게는 그저 탐조로운 장난감에 싫증이 나서 유람선을 타고 싶었던 유년시절의 욕망이 지금에와서 마침 구체화 되고 있다는 기억밖에는 없다.

파리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만큼 서려움도 깊다면에 그런 파리한 기억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칫하면 트거운것들이 오밀조밀 번쩍 버림장같은 느낌이 들을 어쩐가 답인지.

권정연 그는 몽상가 (夢想家) 이리라—.

실상 말이 없는 사람들. 남들이 곧잘게 입소하고 쉽기있게 말꼬랑 때 한쪽에서 홀로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입술로 지껄버린 가슴같은 눈동자를 가진 젊은 사람들. 그런 표정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근엄하고 무뚜미한 사람으로 서금하기 십상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기 내부의 어두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열중하는 인지 (眞摯) 한 사람들이라. 그 어떻고 뜨거운 열정이야 말로 그들에겐 오히려 생 (生) 그자체의 원려소 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둔하다.

반면 그들의 깊고 깊은 꿈을 품에서 신이법한 선택의요람 (選択의 揺籃) 까지도 몽환하고있는것이다. 흐리고 멍한 몽꿈속에는 모 수정처럼 밝고, 방긴이 일정같은 날카로운 신라이 마트 존재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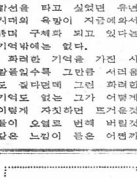
그들은 생활에서 지주이 떨질 느낀다. 사이기가 흐르는 양심. 삶과 죽음의존 문속에 사랑도, 비극성도, 동시에 영웅성도 없는 싸늘한 죽들심 (用物性) 찾자에 찾아않는 권태라는 일상의 암금 을을한 동정에 (同性) 남아있는 는 권주소.

그들은 유달리 추위를타거나 계절의 소유자들이다. 그 어떤 부부의 인간들보다 더 마주한것, 아늑한, 부드러운 것을원한다.

그들의 의식은 순진, 순간 부단히 과국 (破局) 을 누군가가 내게 무슨 해를 줄아차느냐고 물으면 남거림없이 결정해이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 자신이 없다. 아마 우 짤무꿈 (꾀색) 이라고 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제법 순수한 정처럼 「기긴 겉은 해라 천해이 합쳐지긴 했 지만 난 그 인에서 순박 이 주리나오는 길 불수있 으니라요. 』 하겠지.

그래, 인생가 필수 있음 순박의 흔들위해서 살아갔다. 이건 두인가 좋내내는 것에 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 인제나 할말을잡고 있을뿐이다. 그리고 모두가 내 가슴이라고 네게 얘기해준다. 모두가 내가만든 주임들이라고 이해시나 하겠이다. 내부에서 끝이요 모는 밝은것들을 난 인에 처럼 달래야단인다. 업마는 아가를 달래려고 노래하기만 그래가다 업마는 제노래에 잠드는 아프른음내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말음을을 믿는다. 인제나 속지만, 난 다시 믿기로만다. 부정을 포기하기엔 난 아직 너무순수하다.

난 인제나 안다. 내가할수있는 처음의 행위는 인내라는것을 나는 참고 기다릴수 있음뿐이라는 것을 내성장을 위해서, 그리고내성장의 덕에 가만히 기대어오는 네 혼의 덕혜함을 위해서.



눈 감으면

김 정 란 (불어과 1년)

Hens Party

눈을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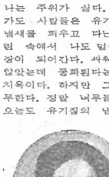
그러면 내 얼굴이 보인다. 빨갛 얼굴,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걸어간다. 자꾸 걸어간다. 자꾸자꾸 이런다. 더. 자꾸 아주 작게.

도시 이건 어쩌찜 노릇인가? 흰질이 가물가물될 어지럼더서 영 없어져 버리지도 않아 참타가 참타가 못하면 남눈을 뜬다.

눈을 잡으면 저기 내가 있다. 작아지기만 하고 없어지지도 못하는 나. 그때 내가 내 밥바닥에 언제나 앉아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누부 시부른다.

나는 백일 구석일을 참는다.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겉지 언제나 일상과 똥물 이건 것, 잔넬 속에 떠돌다가 기심은 뿡에 서들리 발을 딛으려고 댈벗거리는 내 속마음의 그 결장을수 없는 낙하속도 때문일 거라고 말다. 구석집이 인에서만 되풀이 될 때, 그건 아름이 라기보단 이미 하나의 습성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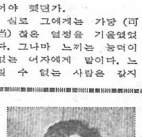
너와 함께 살아있는 나. 그때서 나는 언제나 끈끈리는 속을 보듬고 삼다. 나는 주위가 싫다. 어디때가도 사람들은 유기질화한 냄새를 퍼주고 다닌다. 그 밥 속에서 나도 질펄한 송장이 되어간다. 서럽보지도 않았는데 콩콩된다는 것은 지옥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무관하. 정말 너무들란다. 오늘도 유기질의 냄새는 내게 밥한다.



『꿈인밥이야 하는거라구. 안 겉도 살아있으면서 절그래.』

나는 다시 고개를 밑구 눈을 감는다. 속아선한 되느니 그리고 생각한다. 착각이도도, 한빈점 내 영내 속마음의 그 결장을수 없는 낙하속도 때문일 거고 싶다고.

「피에로」의 퇴장



부전공 「외대학보」를 수료 하면서

권 영 욱 <무역과·4>

언제부터인가나는 「신문기자」라는 직업에상할만 때 려을 느끼고있었으며 또 나도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을 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하가 단절된상태에서 출입력이만 뛸던첫기가생활을 이 복수사회에의 적응과 미학이라는 의 업적 글력의식이 감재화해야 한다는 고통이 나의앞에 도사리고 있었다.

여기서 적응과 실종, 모욕의 잔내라는 관리한 민족성은 그런데로 나름의 방 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